

이세돌·이창호 국제기전 우승컵 몇개?

바둑계에 기축된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세계 정상 자리 놓고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이 벌이는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 바둑계에도 변화가 많다. 이창호, 이세돌 9단 등 간판 스타들이 세계기전 결승에서 패관에 도전하고 있는 틈을 노려 10대 스타 기사들이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국보' 이창호 9단은 중국이 주최하는 국제기전 춘란배 결승(일정 미정)에서 창하오와 대결을 앞두고 있다. 또 응씨배 결승(3월3일)에서 최철한을 상대로 왕좌를 노린다.

지난해 이창호는 체력 저하에 따른 긴 슬럼프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75%의 승률(1위)을 자랑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이 때문에 국제기전에서 이창호가 몇 개의 우승컵을 가져올지가 올 상반기 바둑계의 가장 큰 관심사다.

국내순위 1위 이세돌의 선전도 기대된다. 이세돌은 국제기전인 삼성화재배결승(1월19~22일)에서 공제와 LG배 결승(2월23~26일)에서 구리와 각각 대결을 벌인다. 이세돌은 지난해 이창호에만 1승4패로 뒤졌지만, 상급과 랭킹 부문에서 1위 자리를 내주지는 않았다.

■ 키워드로 보는 2009 한국 바둑

조훈현·서봉수 '신 라이벌전'도 불만

강유택·박정환 "10대 돌풍 지켜보라"

이창호와 이세돌은 또 2월 농심신라편 단체전에 나란히 출전해, 중국의 구리, 창하오, 일본의 다카오 신지와 우승컵을 다툰다.

1970~80년대 한국 바둑의 양강을 형성했던 조훈현, 서봉수 9단의 맞대결도 재만년 볼거리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시작된 '제1기 SKY바둑배 시니어연승 대항전'이 결전의 현장이다.

이 대회는 45살 이상의 한국기원 프로기사 68명이 참가한다. 예선은

거쳐 올라온 14명의 선수로는 조훈현 주장의 '국수(國手)팀'과 서봉수 주장의 '명인(名人)팀'으로 나뉘어 연승전을 벌인다. 4월까지이며 우승상금 5천만원.

10대들의 돌풍도 기대된다. 10대 돌풍 선두는 강유택(18) 2단이다. 지난해 48승19패로 승률 5위(71.64%)다. 승률 1~4위가 모두 9단인 점에 비해 신예 선두로 손색이 없다. 국내순위도 11위로 톱10 진입을 눈앞에 뒀다. 2008 한국바둑리거에



올해는 이세돌, 이창호의 세계기전 도전과 10대 신예 기사들의 돌풍 등 볼거리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지난 2007년 한 해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프로기사들의 다양한 모습. (사이버오로 제공)

서는 영남일보 선수로 8연승 괴력을 뽐냈다.

최연소 박정환(16) 3단도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원익배 10단전

4강에 올라 있다. 오스람코리아배 신예연승회강전에서 첫 타이틀을 따낸 김승재(17) 2단의 기세도 만만치않다.

/오광목기자 kroh@



이세돌, 2년연속 상금왕

삼성화재배 우승 등 7억 2천만원 벌어

'세계대회 무관' 이창호 랭킹 3위 하락

이세돌 9단이 2008년 상금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16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프로기사 상금랭킹에 따르면 이세돌 9단은 지난해에 프로기사 중 가장 많은 7억1천930만원을 벌었다.

지난 2007년에 이어 2년 연속 상금킹에 오른 이세돌은 삼성화재배와 LG배를 우승한 지난해 1~2월에만 4억5천300여만원을 벌었다.

이창호 9단이 2001년 기록했던 연간 최대상금 기록(10억1천1천9백430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후반기 들어 하이원배 명인전 1개 기전 우승에 그쳐 기록경신에 실패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에 기록한 자신의 연간 최다상금 6억143만원을 1억1천여만원 넘어섰다.

한편 2억3천660만원을 벌인 이창호 9단은 박정환에게도 밀려 3위로 처졌다. 박정환은 포함하면 총 9억여원을 벌어들인 이세돌은 다승왕, 바둑대상에 이어 상금왕까지 휩쓸며 3관왕에 올랐다.

상금 랭킹 2위는 박정환 9단이 차지했다. 박정환은 삼성화재배 준우승(5천만원), GS칼텍스배 방어(5천만원), 맥삼배 우승(2천5백만원), LG배 4강(2천5백만원) 등 국내외를 누비며 꾸준한 성적을 올려 2억6천895만원을 벌어들였다.

지난해 이세돌, 이창호에 이어 3위

에 올랐던 박정환이 상금 랭킹2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2억3천660만원을 벌인 이창호 9단은 박정환에게도 밀려 3위로 처졌다.

이창호는 국내기전에서는 전자랜드배 왕중왕전(5천만원)과 원익배 십단전(3천500만원)에서 우승하며, 평년작을 유지했다. 하지만 많은 상금이 걸린 세계대회 우승컵을 한 개도 안지 못해 작년 2위에서 3위로 떨어졌다.

이창호가 상금랭킹에서 3위로 내려앉은 것은 2002년 유창혁, 이세돌에 이어 3위를 차지한 이후 6년만이 다.

/연합뉴스

'역시 박지은'

정관장배 여 최강전, 中 신예 송용혜 꺾어

정관장배 세계여자바둑최강전 최다 연승 기록을 갈아치웠던 중국이 신예 송용혜 3단의 연승행진이 마침표를 찍었다.

송용혜는 지난 13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이 대회 7국에서 박지은에 148수만에 불계로 무릎을 꿇었다.

정관장배 최다연승인 6연승을 달리던 송용혜 3단은 한국의 유일한 여성 9단인 박지은의 벽은 넘지 못했다.

이 대회는 (주)세계사이버기원, (주)바둑TV가 주최하고 (제)한국기원이 주관하며 한국인삼공사가 후원한다. 한중일 3국의 여기사 5명이 출전해 연승전 방식으로 진행해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각 대국은 제한시간 각자 1시간 초읽기 40초 3회, 덤 6집반으로 진행되며, 우승자에게 우승상금 7천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한게임 '아마바둑 최강전'

내달 10일부터 온라인 개최

온라인 바둑 최강자를 가린다. 한게임(http://www.hangame.com)은 오는 2월10일부터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2009 한게임 바둑 아마

최강전'을 연다. 만 30세 이상의 한게임 아마추어 바둑 9단 이용자들은 오는 2월 8일까지 신청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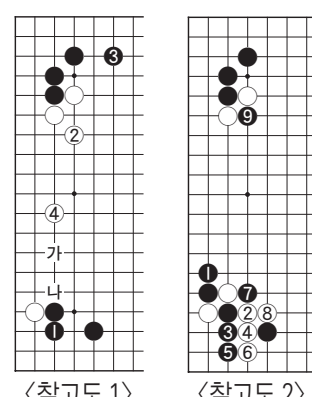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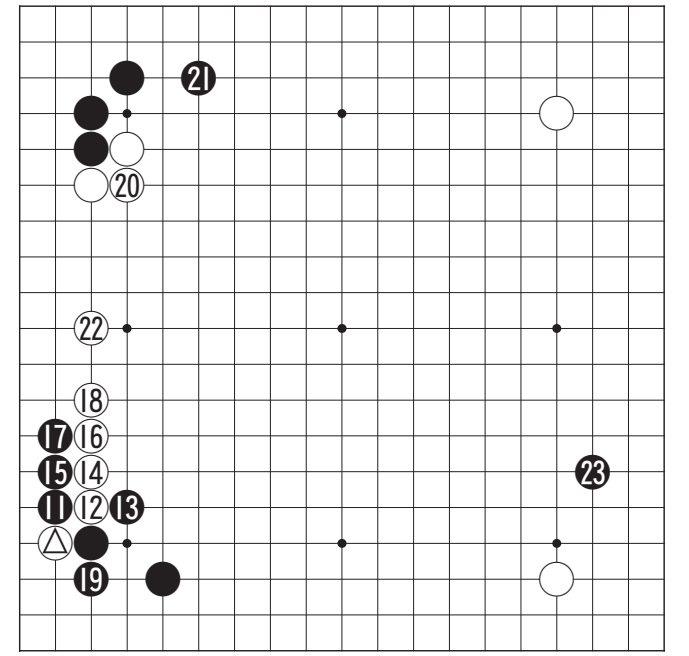
올해도 4회를 맞는 이 대회는 우승 상금 200만원을 포함해 본선 참가자에게 총 68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오광목기자 kroh@

제5회 서구정장배 바둑대회

일사천리의 정석진행
어린이 최강부 결승 2부 (11~23)

白 강범창 4단 <운천초 4>
黑 최우형 4단 <풍영초 6>



한 수로 백 4까지 되고나면 다음 흑이 '가'로 다가 오더라도 백이 '나'로 쫓는 맛이 있어 백이 이득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흑도 단호히 11로 쫓고 13으로 몰아간 것은 기세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흑 13으로는 '참고도 2'의 흑 1로 가만히 빠지는 수도 있었다. 그러면 백 8까지가 예상되는데 그러면 흑 9로 끊어가게 된다.

요즘의 어린이들은 바둑학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론을 배우기 때문에 예전같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석에 환하다. 백 22까지 일사천리로 정석대로 진행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강범창군이 백△로 붙인 수가 프로들의 실전에서 가끔 등장하는 수로 재미있는 수다. 이 수는 흑이 '참고도1'의 흑 1로 받아주기를 기대

백홍석, 목진석 꺾고 원익배 결승 진출

백홍석 6단이 6단의 타이틀이 주어지는 제4기 원익배 십단전 결승에 올랐다.

백홍석은 지난 11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이 대회 준결승전에서 목진석 9단을

209수 끝에 불계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전기 준우승자인 목진석이 다소 유리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승부는 초반부터 무리한 싸

움을 시작한 목진석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낸 백홍석의 몫이었다.

이로써 백홍석은 17일 같은 장소에서 박정환 3단과 우승을 다툰다.

박정환은 지난 10일에 열린 다른 조 준결승전에서 전기우승자인 이창호 9단을 227수 끝에 불계로 물리쳤다. 대회 우승 상금은 5천만원.

/오광목기자 kroh@

경·공매전문기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 전문
☎ 062)222-8446
H.010-3686-8446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근린시설					▶주택					▶아파트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평형	층	면적	감평가	최저가
내남동	290/89	5947700원	3956000원	4년 새만남사업	일곡동	55/38	98300원	4400원	블록초고인근, 단층	금호동	중앙 아파트	11층	34	195700	198800원
오차동	49/51	1981100원	9030	8도사무실, 사설노인	박곡동	114/28	2986700원	1980600원	양재역, 중앙역	하동	삼익 아파트	5층	54	1975000원	1922500원
공동	48/216	8925000원	4998000원	별墅 아파트, 4층	두원동	54/33	1928800원	7100원	양재역, 양재역	일곡동	화랑차	14층	20	53000원	37100원
수기동	50/103	4926000원	2998000원	4년 새만남사업, 4층	오차동	112/45	2923800원	1980300원	오차역, 양재역	미림동	화랑차	1층	34	1972000원	963200원
신오동	110/257	6981000원	395000원	상, 사무실, 4층	내남동	312/88	2940000원	19414200원	노원, 양재역, 양재역	유촌동	버들주공 차	7층	33	1925000원	875000원
양산동	362/983	41940000원	21920000원	공영주택, 양재역	금호동	196/156	3971000원	2998000원	양재역, 양재역	주원동	삼익 아파트	2층	32	1940000원	770000원
지서동	151/213	595400원	3954000원	법, 사무실, 4층	광안동	52/61	1924800원	872000원	무등산정안근	금호동	리안	5층	37	1920000원	840000원
금호동	104/234	7981000원	3927600원	화원 사무실	정신동	200/44	8842000원	4952000원	소도마을안근	금호동	부영 차	14층	32	1925000원	875000원
					황곡동	207/52	64800원	4533만	침릉초고인근	금호동	노계공	2층	21	85000원	455000원
					홍동	38/39	97900원	69600원	서석초고인근	주원동	호반 차	3층	38	2970000원	19890000원
					선동	88/35	882000원	618000원	광안대안근						
					삼동	44/38	815000원	5710000원	무등산정안근						

월산동
대118/건295
매매가4억7000만
교동권리, 대로변
병원, 요양원, 학교

최순도곡면
대186/건158
감평가3억7100만
최저가2억9000만
고급주택, 주택

쌍림동
대63/건416
감평가4억4억
최저가2억8000만
오피스텔/월30개

쌍촌동
대63/건106
감평가3억2200만
최저가2억2800만
127기/인물

지산동
대54/건117
감평가3억2530만
최저가2억2770만
187기/인물

응동
대503/건412
감평가4억6800만
최저가16억7760만
광명/평동권내

갖고싶은 주방가구 리첸

RITCHEN

리첸 주방가구

광주직영전시장 OPEN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56-9 **062)515-2272**

"리첸"은 리바트가 만드는 주방가구 전문 브랜드입니다 www.ritchen.co.kr

2007 국가환경경쟁대상 대통령상
"뽕"우수상품 3년 연속 선정!

주방가구 업계 최초, 환경마크 획득

구·서흥
리첸광주
직영전시장

신남대학교
한국대학교
태양사옥
태양초점